

무주군, 역점시책 목표 달성 총력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갖고 군정추진 방향·발전방안 토론·'무주다움' 완성 다짐

무주군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업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는 이번 보고회는 성과와 반성, 업무추진 방향 등을 검토하며, 황인홍 군수와 김희옥 부군수의 군정추진 방향에 대한 당부와 발전방안 토론으로 진행된다.



무주군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군정업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는다.

업무보고는 지난 17일 자치행정과를 시작으로 19일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로 20개 부서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업무보고를 통해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민선7기 군정방침의 실현과 임인년 추진할 '오감만족 문화관광', '도약하는 지역경제' 등 2022년 7대 분야 역점시책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서와 공직자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모든 역량과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군은 올해 역동적으로 추진될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주력하는 한편, 도시다운 규모와 환경을 갖춘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 방위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각오다.

특히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신속하고 원활한 군정 추진을 꾀함으로써

정주권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잘 사는 '행복도시'를 완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비롯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무주다움'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는 데 심혈을 쏟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비롯해 군립요양병원 건립 등으로 주민생활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무주군의 경쟁력을 가속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보고회는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향후 새롭게 미래를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다"며 "각종 현안사업들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살기 좋은 무주, 희망찬 무주'의 모습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년 무주 정착 위한 지원사업 추진

청년 가계 임차료·청년 키움 두 배 통장 지원

무주군이 올해 청년들의 무주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년 가계 임차료 지원과 청년 키움 두 배 통장 지원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국 군단위 농촌 지자체의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선제적 정책으로 무주 정착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청년 가계 임차료 지원사업'은 올해 청년들을 위한 군의 신규 사업이다.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창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따른다.

이 사업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비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무주군에 거주하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1~4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 소기업

가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군은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군비 1억 원을 확보하고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상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 주민으로, 이 중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축산업 소득자가 해당한다.

희망자는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입증 및 경력확인서 등)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일자리 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퇴비 부속도검사 무료지원

진안군은 올해도 퇴비 부속도 의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퇴비 부속도 의무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마부속 퇴비 사용에 따른 토양 오염을 막을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퇴비 사용은 작물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부속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상담소에 비치된 시료봉투에 퇴비 500g 정도를 밀봉해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 분석실에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과 무진장축협은 18일 한우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을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은 장영수 장수군수, 송제근 무진장축협조합장, 김용문 군의회 의장, 박용근 도의원, 정재호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무진장축협 임직원, 한우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수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 개장

전자식 스마트 계류대 교체·스마트폰으로 경매 가능

장수군과 무진장축협은 18일 한우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을 개장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개장식은 장영수 장수군수, 송제근 무진장축협조합장, 김용문 군의회 의장, 박용근 도의원, 정재호 지역본부장을 비롯한 무진장축협 임직원, 한우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 사업비 2억원이 투입된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은 출하되는 한우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기존의 종이인쇄 형식의 계류대를 전자식 스마트 계류대로 전면 교체해 매수인에게 한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한우에 대한 실시간 정보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경매상황 실시간 방송·송출 설비와 전자식 경매시스템을 갖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경매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면 거래를 통해 방문자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감염병과 가축 질병의 지역 확산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전북 최초 스마트 가축시장인 장계 스마트 가축시장이 개장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스마트 가축시장 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수군 축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성과"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한우 값 문제와 수급 불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군은 앞으로도 가축방역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코로나19 극복 산림분야 일자리에 30억원 투자

장수군은 2022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취업취약계층 청·장년층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참여자를 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8명과 도시숲 관리 인력 8명 등이다. 오는 21일까지 도시숲 관리 인력 분야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장수군청 산림과에 직접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군은 서류심사 후 체력검정 및 면접을 시행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도시숲 관리 인력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산불감시원 53명, 숲해설가 2명,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2명, 산

림병해충예찰방제단 3명, 산사태현장 예방단 4명, 숲길등산지도사 1명, 임도관리원 3명, 숲가꾸기패트롤 5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6명을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악화된 저소득층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일자리 제공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모집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치매안심센터, 만60세 이상 무료치매 조기검진 실시

진안군은 매년 증가하는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상자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진안군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되며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판단될 경우 주 1회 방문하는 협력의사를 통해 2차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진단검사 후 정확한 치매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협약병원(진안군의료원, 대자인병원)과 연계하여 혈액검사 및 뇌-CT, MRI 등의 3차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진비용은 소득기준 없이 무료로 지원되고 있다.

또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단 받은 대상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치매환자 조호용품 등을 소득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1 사례관리 및 워터 프로그램 등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선별검사는 진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및 면에 소재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무주군은 오는 21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업구에 대한 수거를 펼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한 취지다.

군은 단속반(2개 반 4명)을 구성한 무주군은 20일부터 이틀동안 관내 건강원과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펼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은 총포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포획행위 여부를 비롯한 포획된 야생동물 미신고 및 판매여부, 야생동물 중 보호종을 포획해 반제용으로 사용하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